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9 | MAY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5월호 / 통권 299호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9 | MAY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하는 죄(罪)에 대하여
전례와 생활	10 미사 바로 알기 (7) - 성찬 전례를 위한 준비 14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17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교회의 가르침	18 성경에 담긴 생태적 지혜 22 순교복자 원시장 베드로와 원시보 야고보
신앙과 삶	28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
듣다 읽다 보다	30 고전 음악을 듣다 3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48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성령강림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 모든 천사와 더불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 주소서.
- 저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슬하에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고,
-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저희 죽을 때에 저버리지 마옵소서.

◎ 아멘.

연초록의 계절입니다. 연초록부터 짙은 초록에 이르기까지 마치 생명의 현시인 듯 번져가는 나뭇잎들이 장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코로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은 사뭇 암담하지만, 자연은 이렇게 무심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향유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은 멈춰 서서 그런 자연 세계에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 래야 허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 성월’로 제정하여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보냅니다.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5월을 성 모 성월로 제정하여 기념하는 것은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고, 또 성모님은 모든 산 이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모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함이며,’ ‘성모님이 보여준 하느 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하늘나라 에 불러 올라간 성모님은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뵈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 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의 삶을 두고 ‘하느님 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도 도구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고 가르 치고 있습니다.

이 5월 가톨릭직장인 애독자들과 함께 성모님께 옆의 기도를 바치며 한 달을 보냈으면 합니다.

노우식 신학교 이사장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하는 죄(罪) 에 대하여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죄(罪)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신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철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죄는 인간존재의 기본적 체험에 속합니다. 구원의 역사, 구세사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 편에서의 끊임없이 시도된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사랑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 그리고 우리의 실재 삶과 당연히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죄의 의미

창세기 1-3장을 읽어보세요

죄(罪)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에서는 '하느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 분명히 나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자유 의지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한, 꼭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죄는 하느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육체적·감각적 노예가 되게 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결국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죄는 인간성에 속한 것이며, 악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고, 인간 본성에 대한 배신으로서 이성을 거슬러 성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죄란 영원한 법(하느님의 법)을 거스르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책임 있는 행위와 자유를 가지되 자신이 선택한 목적을 위해 잘못 실행한 행위에서 생기며, 인간의 원의가 무한한 것처럼 죄의 다양성도 무한합니다.

2. 성서에 나타난 죄의 개념 ! 루카 15장을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죄를 하느님의 율법과 뜻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봅니다. 특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침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불순명입니다(신명 28,15-68).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 명령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죄를 짓습니다(창세 3장). 하느님께 불순명하는 그들의 행동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준 것보다 더 소유해야 하겠다는 욕심,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는 원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구약의 가장 특징 있는 기술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죄는 계약을 맺은 하느님을 망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호세 1,3; 예제 16,1-9).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이탈과 배은망덕으로도 생각됩니다(이사 1,24, 아모 3,2). 구약에서 인간의 죄는 창조주인 하느님 계명에 순명치 않고 계약을 파괴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고 그의 마음과 방향을 하느님께로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죄는 주님께 대한 이탈로 나타납니다(루카 15,11-32). 사도 요한에게는 죄는 빛의 부인(요한 3,19), 진리의 부인(요한 8,44)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말하는 죄는 어둠과 거짓말과 다름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대체로 죄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구원을 잃고 하느님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모든 자유와 선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원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떼어놓고, 인간이 하느님께 드려야 할 찬미와 영광을 거부하고 대항함으로써, 하느님을 잃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죄는 하느님의 의지에 대립함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고, 율법에 표현된 하느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가장 무례한 불의를 행함을 의미합니다.

3. 죄의 원천

1코린 13장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칠죄종(七罪宗)을 죄의 원천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로서,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원인의 내적 가능성은 지성, 감성적 욕망, 의지 등이고, 외부에 있는 죄의 원인의 가능성은 마귀입니다. 칠죄종(七罪宗)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범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을 일컫는 그리스도교의 용어입니다. 칠죄종은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쉬운 경향에 대해 교회가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하여 대두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입니다. 즉 교만(오만하여 남을 업신여김), 인색(하는 짓이 소심하고 인색함), 음욕(성욕의 노예가 되어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함), 분노(분에 겨워 몹시 화를 냄), 탐욕(음식이나 재물을 탐하여 지나칠 정도로 먹고 마심), 질투(우월한 사람을 시기함), 나태(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함) 등이 칠죄종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칠죄종은 죄원(罪源), 즉 모든 죄를 유발시키

는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칠죄종에서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4. 범죄 예방과 죄의 사함

에페소 1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고, 세상 물질의 진정한 가치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겸손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의탁해야 하며, 자제, 극기, 보속, 희생 등으로 양심이 가르치는 바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죄지을 기회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례는 죄와 죄의 용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미사의 참회 예식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며, 영성체를 하기 전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께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재의 수요일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며, 사순시기 내내 우리 죄에 대해 참회합니다. 참회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해성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와 병자성사에서도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통해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는 전례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례는 하느님과 이웃을 거슬러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죄 사함은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선물을 다시 부여하여 죄를 지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미사 바로 알기 (7) - 성찬 전례를 위한 준비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미사 전례의 첫 번째 식탁으로서 말씀 전례가 끝나면 두 번째 식탁으로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기인합니다. 성찬례와 관련된 복음서의 이야기들(마태 26,17-35; 마르 14,12-31; 루카 22,7-38)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의 잔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해온 것을 전해 받아 오늘날까지 전례 안에서 이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전례의 구성

성찬의 전례는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와 축성을 하고, 축성된 성체를 나누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성찬례처럼 같은 재료인 빵과 포도주를 제단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통해 구원 업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빵과 포도주를 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성된 하나의 성체를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예식은 전례 안에 함께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대 준비

말씀의 식탁인 독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성찬의 식탁인 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의 전례가 이어집니다. 제대

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의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기념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물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제대는 성찬 전례의 중심 장소인 ‘주님의 식탁(1코린 10,21)’으로 준비됩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대 위에 제대초와 복음집 말고는 아무것도 놓아두지 않은 채로 비워두었다가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 미사 경본과 성체포(성합과 성반, 성작을 놓기 위해 펼쳐 놓는 아마포), 성작 수건(영성체 후 성혈을 닦기 위한 수건), 성반(성체로 축성할 제병을 놓는 접시), 성합(성체를 담은 그릇), 성작(성혈로 축성할 포도주를 담은 잔)을 제대에 펼쳐 놓습니다. 그다음에 신자들이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나릅니다.

예물의 준비

성찬 전례가 시작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빵과 포도주를 제대로 가져옵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과 성직자들의 생활을 위한 정성을 표현하고자 빵이나 포도주를 가져오던 예물의 제공(offer, offertory)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봉헌(oblacion)의 의미로 바뀝니다. 2세기 중반의 성찬례에 대한 문헌에서 고아, 과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곤궁한 이들을 위해 이루어진 자선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부자들은 자신이 정한 대로 내놓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은 집전자에게 전달되어 고아, 과부, 병이나 다른 이유로 돈이 없는 이, 수감자, 이민, 한마디로 모든 곤궁한 이를 위하여 쓰입니다”(성 유스티노, 「호교론」 제1권). 성찬례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자선 행위는 11세기 이후에 화폐의 발달로 인해 현금으로 바뀝니다. 봉헌 행렬은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사라졌다가 20세기 초 전례 부흥 운동의 노력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미사 전례에 자리하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의 봉헌

빵은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집회 20,21; 39,26)이며,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레위 26,26; 시편 105,16; 에제 4,16; 5,16). 그래서 ‘빵을 먹는다’는 표현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창세 31,54; 37,25; 1열왕 13,8-9. 16-19). 이스라엘 백성은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탈출 29,2; 레위 2,4-7; 7,13), 또 연중 축제의 시기에 거행하는 예식 때(레위 23,15-20) 빵을 만들어 예물로 바쳤습니다. 포도주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에 자주 등장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빵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희생 제사 때 바쳐 올렸고, 성전에 십일조로 내야 하는 첫 소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느헤 10,36-39).

누룩이 든 빵을 사용하는 동방 비잔틴 교회와는 다르게, 로마 가톨릭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만든 것으로 라틴 교회의 전통대로 누룩 없이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포도주는 이물질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포도로 빚은 것이라면 적포도주든 백포도주든 상관없습니다. 사제가 기도 전에 포도주에 약간의 물을 섞는 것은 당시의 관습을 넘어서, 그리스도 옆 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요한 19,34), 인성을 취한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 그리스도와 맺어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손으로 봉헌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빵을(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 창조의 선물과 우리 노동의 결실, “인간의 손으로 땅을 일구어 얻은 소출”을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빵과 포도주를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가짐의 준비

신자들과 더불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합니다. 제대에 예물을 차려놓고 빵이 든 성반과, 포도주와 물이 든 성작을 들고 찬미 기도를 드린 다음에도 사제는 허리를 숙여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너그러이 받아주시기를 청하며 사제 홀로 허리 숙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제는 물로 손을 씻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식을 본격적으로 거행하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제와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정결례를 거행해야 했습니다(탈출 29,4; 민수 8,7).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도 사제는 청동 대야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탈출 30,17-21).

성찬의 전례에 들어서면서 시작 예식의 참회 행위에 이어 정화를 간청하는 기도와 행위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시편 24,3-4).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베난시오

St. Venantius (축일: 5월 18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이탈리아 도시 가운데 카메리노(Camerino)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곳에 한 귀족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 포르피리오(Porphiry) 신부에 의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르피리오 신부는 이탈리아 움브리아(Umbria) 지방의 카메리노에서 주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 황제 데키우스(249-251) 시절에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포르피리오 신부에 의해 그리스도교로 입문하게 된 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카메리노의 성 베난시오 순교자입니다. 베난시오 성인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았고, 엄청난 고문까지 당했는데도 왜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의 이름 속에 그 충절의 씨앗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난시오(Venantius)라는 이름은 라틴어 동사 베노르(Venor)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의 뜻은 영어로 “to hunt an animal, to chase a prey, to pursue, to seek or obtain, search, to find”입니다. 해석하자면, “동물사냥을 하다, 먹잇감을 쫓다, 추구하다, 찾다, 획득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동사의 현재분사인 베난스(Venans)에서 더 파생되어, “목표를 쫓는 사람,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람, 어떤 특정 목표를 발견하고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교자나 다 동일하겠지만, 베난시오 성인 순교자는 자신이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사자의 사냥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가문이 발견한 보물인 그리스도교 신앙을 끝까지 열렬히 추구했던 사람이기에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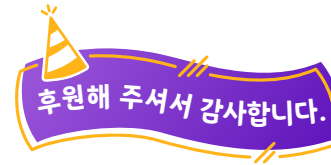
카메리노의 총독인 안티오쿠스(Antiocus)는 데키우스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되었을 무렵에, 베난시오에게 배교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베난시오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게 엄청난 고문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불붙은 석탄을 머리에 얹기도 하고, 치아를 뽑기도 하고 턱뼈를 부수기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총독은 그를 매우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에서 떨어졌음에도 다행히 기도 중에 아무 곳도 다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난시오 성인이 박해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바위에서 샘물이 솟게 합니다. 성인이 무릎 꿇은 돌에 성인의 무릎 흔적이 있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총독은 베난시오 성인이 다른 이들을 유혹했다고 비난하면서, 베난시오와 함께 10명의 사람들을 참수형으로 단죄합니다. 도시 바로 외곽에 순교터가 있었고, 나중에 성 베난시오를 기리기 위하여 대성당이 건립되었으며, 베난시오의 유물과 그의 스승 성 포르피리오의 유물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베난시오 성인은 그가 개종시킨 군인들이 기쁘게 순교하도록 인도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의 상급으로 환영 하시겠다고 말했고, 성인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순교한 후, 안티오쿠스 총독의 집은 격렬한 지진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1200년 말부터 성 베난시오는 카메리노의 수호자가 되었고, 또한 영육간의 여러 문제로 넘어진 이들을 위한 보호 성인, 두통 및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 청년들의 보호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난시오 성인의 이 열렬하고도 끝까지 쫓는 충심이 바로 그의 이름 속에 '이미' 안배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과 너무 대조되지 않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감탄고토(甘呑苦吐),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신앙을 취사선택하는 우리의 인색함이 성인의 열렬한 신앙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시편 11,7)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개인 후원: 전윤주, 애정희, 부선정, 김소영, 정미순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리기간: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চাল고피정: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세례성사: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문의전화: 02-727-2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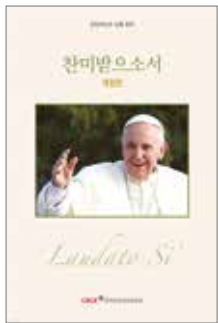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2	1	3	2	2	10명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성경에 담긴 생태적 지혜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이번 달부터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제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1장에서 생태 위기의 현실을 살펴본 회칙은 이제 제2장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생태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신앙적 확신이 자연 보호와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는지”(64항)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태적 관심과 책임이 ‘신앙이 주는 빛’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바라며 회칙은 먼저 성경에 담겨 있는 생태적 요소들에 주목합니다.

관계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

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피조물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이라는 세 가지 근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가 전하는 창조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가지 관계, 곧 하느님과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66항)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기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어졌고, 이러한 불화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않을 때 어떻게 하느님과 땅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면, 나 자신, 다른 이, 하느님, 지구와 각각 맺은 관계를 망쳐 버리게 됩니다”(70항). 이처럼 회칙은 성경에 담긴 관계 중심적인 생태적 지혜에 주목하며,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삶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성원은 그 기원과 목표가 모두 같은 하느님이라는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기원인 창조주 하느님을 향하듯, 다른 피조물들도 자신의 기원인 하느님을 지향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상호 연결되어 존재하는 자연과 인간은 결국 하나이며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 자신의 삶과 자연과 맺은 관계를 올바르게 돌보는 것은 형제애, 정의, 다른 이에 대한 충실함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70항).

창조 질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라는 말

씀이 의미하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원초적 축복이 가득한 곳이고 그 안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선을 나누어 받습니다. 또한 만물은 아무렇게나 있지 않고 창조 질서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며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 세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계시되는 우주의 질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편리와 이익이 아닌 하나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일, 그것이 바로 “창조주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조화”(66항)를 위한 길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인간이 “자연법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교한 균형을 존중”(68항)해야 함을 강조하며 성경의 율법에 주목합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위한 다양한 규범을 인간에게 제시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 관한 규정들은 땅, 인간, 동물에게 주기적인 휴식을 줌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고 창조의 본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들은 “인간이 다른 이들과 맺은 관계와 그들이 살고 일하는 땅과 맺은 관계에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71항)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통에는 창조 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생태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창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생명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69항)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한 효용 가치와는 별도로 그 자체로 좋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내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통해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

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합니다”(69항).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하여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69항)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고유한 가치와 법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길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 세계에 뿌리내려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아버지로서 맺으신 관계”(96항)를 깨달으라고 권유하는 분이십니다. 즉 새들을 먹여 주시고 들풀의 꽃도 차려 입히시며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모두 중요하다”(96항)는 사실을 일깨워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경탄하시고, 다른 이들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창조 세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피조물과 완전한 조화”(98항)를 이루며 사셨던 분입니다.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에서 그분과 창조 세계의 긴밀한 관계와 존중의 자세는 잘 드러납니다.

성경이 오늘날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든 답을 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담긴 생태적 지혜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창조 질서 보전과 회복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경 이야기가 인간과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65항) 귀 기울이며, 우리네 생태적 삶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순교복자 원시장 베드로와 원시보 야고보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03위 성인들이 모두 기해·병오박해 순교자(1839년, 1846년), 병인박해 순교자(1866)에 한정되어 있던 반면에, 124위 복자들은 한국천주교회 창설기의 유명한 순교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위 시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한국천주교회가 평신도의 자발적인 수용(受容)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3위 성인들은 모두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시대 인물’이라며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성을 담당하고 있던 청원인은 79위 복자와 24위 복자가 모두 파리외방전교회가 들어온 이후 시대의 순교자들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한국교회의 창설기 시기의 평신도 순교자들은 아직 시복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그때, 그러면 103

위 성인 말고도 한국 초기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도 다시 추진하려고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124위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이 추진되어 지난 2014년에 시복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최초의 순교복자 윤지충, 권상연을 소개했습니다. 124위 복자 중에는 1791년 진산사건의 여파로 순교한 인물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1793년에 순교한 원시장 베드로 복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시장 베드로와 그의 사촌형 원시보 야고보 순교복자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원(元)시장은 1732년 홍주 응정리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디 원 베드로의 성격은 사나워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1789년 혹은 1790년경 50이 넘는 나이에 천주교의 가르침을 듣고, 그동안 헛되게 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50년 이상 나는 여러 차례 죽을 뻔했소. 그러나 오늘부터는 수천 년 동안 생명을 보장할 처방을 지니게 되었소.” 그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와 원죄·강생·십계명 및 천국·지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사나운 성격은 온순해지고, 재산들을 빈곤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은 물론 외교인들에게 천주교를 권면하여 30가족 이상 입교를 시켰는데, 이러한 원씨 집안의 소문들이 관장(홍주 목사)에게도 들렸고, 관장은 처음에 원시장보다 더 유명한 원시보 야고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원시보는 친구들의 권고에 따라 피신하였는데, 그 대신에 원시장 베드로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사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천주교와 하느님을 부인(否認)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형벌을 받고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감옥에서 세례(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감사(監司)에게 보내져 더욱 잔혹한 형벌을 받

으며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교를 위한 회유로 가족과 자녀들 이야기로 설득하였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 베드로는 매질과 추위로 온몸이 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61세로 1793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문모 신부님이 오기도 전에 윤지충, 권상연과 원시장 베드로가 순교하였습니다.

위의 원씨 집안 순교자의 내용은 이른바 다블뤼 주교가 남긴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이하 “비망기”로 약칭함)의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블뤼 주교는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 수집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교회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에 있었던 조선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망기”에는 1791년의 진산사건 이후, 그 화가 내포지역까지 이어진 것을 밝히고, 원씨 집안의 두 순교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이를 조사하여 기록을 남긴 때는 1860년 경으로 이미 70여 년 가까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원시장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비망기”에는 순교자 기록을 정리하면서 때때로 다블뤼 주교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다블뤼 주교는 1791년 신해 진산 사건의 여파가 서울에서는 작용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조가 과격파가 아니었고, 중용의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이 박해의 여파가 있었고, 특히 내포 지방에서는 작은 박해가 계속 있었는데, 홍주 지방에서 원 씨 집안의 순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씨 집안의 순

교자 이야기는 그의 손자들에게서 수집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64세 된 원 베드로의 손자인 원 요한은 자기 할아버지가 1791년의 신해년 윤지충 사건이 있는 직후에 순교했다고 말하는데, 78세 된 또 다른 친척의 주장과 어긋나므로 우리는 어느 쪽의 주장을 취해야할지 몰라 두 주장 그대로 놔둔다.”(「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중에서)

이처럼 한국천주교회 창설기의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 후손들이나 파편적인 기록들을 한데 모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 베드로의 사촌형인 원시보 야고보 복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 베드로와 같은 집안이므로 홍주 응정리 출신인 원 야고보는 1730년 생으로 그의 나이 60세가 되어서 사촌 원 베드로와 함께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하였습니다. 동생 원시장과는 달리 본래부터 원시보는 성품이 어질고 순하며 솔직하였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는 식탐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 금요일마다 단식하였고, 주일마다 음식을 장만하여 사람들을 초대하여 ‘구세주의 날’을 함께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 명성 때문에 먼저 체포될 위기가 있었으나 사촌 동생이 대신 붙잡혀 순교하였고, 그 후 자신은 순교하지 못함을 후회하며 더 열심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의 입국 소식을 들었고, 성사를 받고자 했으나 첩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첩을 내보낸다는 조건을 가지고 성사를 받았고, 그는 교회의 계명을 지키며 더욱 더 공공연하게 신앙을 드러내며 순교에 대한 갈망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는 1798년에 체포되어 덕산과 홍주 진영에서 형벌을 받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청주의 병영(兵營)에서 심문을 받을 때, 배교를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였지만, 그는 9년 간이나 순교

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매를 맞으며 옥사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시신 위로 놀라운 광채가 나타나 많은 외교인들이 보고자 모였으며, 그때 약 50가족이 입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 야고보의 나이는 그때 70세였으며, 1799년 음력 3월 13일(양력 4월 17일)에 치명(致命)하였습니다.

청주로 이송되면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가왔을 때, 원시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네. 모든 고통을 참아 낸다면,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착하신 동정 마리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네. 그대들이 여기에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니 돌아가게. 이성을 잃고 대사(大事)를 그르칠 수는 없네.”

그의 고향 응정리는 현재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로 추정하며, “버그네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 지역은 진산 사건(1791)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간 굳건한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버그네길” 사이에는 복자 원시장과 원시보가 마시던 우물터가 있으며, 이 우물을 먹으며 성장한 이들이 이 물로 세례를 받으며, 마음을 씻고 영혼을 정화하며 영원한 생명의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

목상

- 원시장 베드로 복자처럼 신앙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 가운데서 마음 가짐이 변화한 경험이 있는가?
- 원시보 야고보처럼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속으로 자신도 희생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Cornerstone



Image by Leonid Radashkovsky from Pixabay

겔세마니(영어: Gethsemane, 그리스어: Γεθσημανι)

겔세마니는 예루살렘의 동쪽,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으며, 예리코 가도(街道)에 면한 동산이다(요한 18,1). 히브리어로 ‘올리브 기름 짜는 기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곳에 왔었다. 특히 겔세마니는 예수가 죽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 슬픔과 고뇌에 찬 최후의 기도를 드린 동산이고,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의 체포가 이루어진 장소이다.

그 기도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Non mea voluntas, sed Tua fiat).”라는 기도로 인류 대신 속죄를 위한 자신의 다가올 운명을 감당하기 힘들기에,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느님께 비는 의미이다. 예수의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장면 중 하나이다(마태 26,39; 마르 14,36; 루카 22,42).

이곳에 세워진 겔세마니 성당은 서기 375~395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건축된 교회였으나, 614년 페르시아 침입 시 파괴되었으며, 8세기에 지진으로 또다시 파괴되었다. 현재의 성당은 1919년에 세워진 것으로 가능한 한 옛 모습을 재현코자 했기 때문에 4세기 중반의 바실리카 모양이나 비잔틴 시대의 모양과 벽의 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이 성당은 ‘고뇌의 대성전(the Basilica of the Agony)’이라고 불리고,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헌금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만국민의 교회(the Church of All Nations)’라고도 한다. 성당 옆 올리브 정원에는 1천년이 넘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위쪽에 그리스 정교회의 동산이 있다.

또한, 성시간(hora Sancta)은 예수성심(聖心)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겔세마니(Gethsemane)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미냐?”(마태 26,40)라고 한 성서 말씀에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자영업자인 박 바오로는 평상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매일 새벽미사를 봉헌하고, 본당에서 진행하는 피정이나 신앙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내에게 잠시 일을 맡기고서라도 참석하는 독실한 신앙인이다.

그런데 최근 주문이 밀려 주일에도 지방 출장을 연달아 다니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일 미사를 3주 동안 빠지게 되었다. 더구나 고해성사도 제때에 드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영성체를 할 수 없는 미사 참례는 하느님과의 일치의 시간이 없어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남편의 이런 영적 갈등을 눈치챈 아내 요셉피나는 부드럽게 조언한다.“여보, 먹고 사는 일로 고해성사를 못한 것인데, 이번 주일에는 그냥 성체를 모시고 다음번에 성사를 보세요.” 그 말은 들은 바오로는 ‘그렇까?’ 하다가도 ‘그건 아니지’하고 죄의식이 고개를 들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새벽부터 출장길에 오르며, 성모님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Question

고해성사의 의무 때문에 냉담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요한1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동행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 주는 하느님과 화해
- 교회와 화해
- 죽을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96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 -
어머니와 스승 슈만을 향한 슬픔과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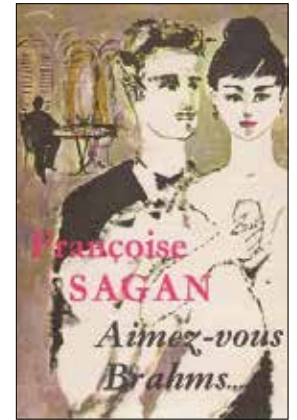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J'ai bien le droit de me détruire)’고 하여 당대의 젊은 이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 작가 사강(Françoise Sagan, 1935-2004)의 대표작 ‘브람스를 좋아하세요.(Aimez-vous Brahms)’(1959)는 원래 어둡고 복잡하여 프랑스에서 인기 없었던 브람스의 음악을 권태로운 일상을 탈피시켜줄 ‘아웃 사이더’로 암시하여 제목으로 삼았지만, 언젠가부터 ‘고독’을 상징하여 얼마전 우리나라의 TV드라마의 제목까지도 되었다. 브람스의 음악은 두툼한 질감 속에 선율을 첼로나 호른처럼 튀지 않는 소리에 두어 마치 속마음을 숨긴 것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 숨긴 음을 찾아 듣지 못하면 브람스는 어렵기만 할 뿐이지만, 두툼한 질감 속에 따뜻한 선율이 숨겨있어 매력적이다. 스승 로베르트 슈만의 비극적 죽음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과 연결된 ‘독일 레퀴엠 (Ein deutsches Requiem) Op.45’(1865-68)도 그러하다. 브람스는 라틴어 전례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서 가사를 발췌하였기에, ‘독일 레퀴엠’이 아니라 ‘독일(어) 레퀴엠’이 더 정확한 번역이다. 브람스가 선택한 독일어 성서의 가사가 ‘Selig(행복하여라)’(마태오 5, 4)로 시작되기에, 흔히 ‘살아남은 자를 위로하는 음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누구보다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스승 로베르트 슈만과 어머니에 대한 슬픔과 애착이 아래의 악곡 분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로베르트 슈만의 비극적 생애, 브람스의 클라라와의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브람스의 어머니 요한나(Johanna Henrika Christiane Nissen, 1789-1865)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소개하고 나서 비로소 독일 레퀴엠 곡 자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요한나는 어려서부터 삶바느질을 하다가 그녀의 여동생(기혼)과 함께 살면서 단추, 실, 면직물을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렸고, 돈을 아끼고자 방 하나를 세를

주었다. 여기에 세든 사람이 브람스의 아버지 요한(Johann Jakob Brahms, 1806-1872)였다. 다층건물에 작은 거주공간이 겹겹이 있는 함부르크의 빈민가 지역으로 2차대전의 폭격과 도시개발로 지금은 사라진 지역이다.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의 여인숙 식당에서 보조일도 해가며 종일 노동에 시달렸지만 부지런하였다. 아버지는 함부르크 근교 시골출신으로 가업인 목수를 거부하고 가출하여 음악가의 길을 택하였고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함부르크로 온 것이었다. 호른과 더블베이스 주자로 임시직으로 겨우 일당을 챙기기도 하고 거리의 악사로 폰 돈을 버는 정도였다. 어머니는 여동생과 달리 어려서 병을 앓아 다리를 절고 약간의 사시도 있었지만 강한 정신력을 가진 여성으로 과도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체적 결함으로 혼기도 놓쳐 37살이 된 노처녀는 갓 20살의 청년에게 방 하나를 세주면서 사랑에 빠져 결국 1830년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렀다. 첫 딸에 이어 1833년 브람스가 태어나고, 그 후 남동생과 함께 2남1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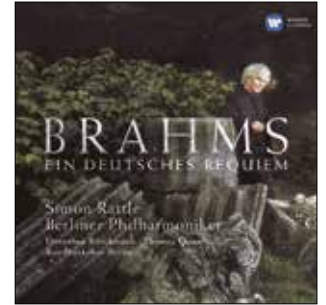
프랑수아즈 사강,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영국초판(1959) 표지
Aimez-vous Brahms?
(Do you like Brahms?)
First UK edition
(publ. John Murray)

의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 아버지는 한자 동맹의 상업도시 함부르크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시 자경단(오늘날의 사설경비원)에서 나팔을 불며 간혹 함부르크 관현악단의 임시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싼 집을 찾아 이사를 자주하며 더 가난에 빠졌다. 그러나 브람스의 부모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1838년 브람스를 비싼 사립 초등학교(Volksschule, 1870년까지는 함부르크에 시립학교가 전혀 없었음)에 보내면서도 별도로 음악레슨을 받도록 하며 눈물겹게 지원을 하지만, 브람스도 학교를 마친 13살부터는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유흥가에서 선원들을 위한 춤곡의 피아노를 치며 생계를 도와야 했다. 브람스는 이런 가난 속에서 부모와, 특히 어머니와 강한 애착을 느꼈다. 후에 쓴 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부모님을 둔게 얼마나 복된가. 어머니와는 가능하다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1864년 부모님은 이혼하고, 어머니는 다음 해 1865년 사망하였다. 1865년은 브람스가 빈에서 음악가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가던 해로, 급거 함부르크로 귀향하지만 결국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망연자실한 죽음 앞에서 상실감에 사로잡혔다. 7년전 스승 슈만의 비극적 죽음으로 비롯된 레퀴엠의 구상은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수년

에 걸쳐 최종적으로 7곡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브람스는 전통적인 라틴어 전례문을 쓰지 않고 독일어의 ‘비전통적 레퀴엠’을 만들었다. 음악학자 중에는 레퀴엠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테트와 같은 종교합창곡, 심지어는 오라토리오라고 해야 할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브람스 스스로 ‘레퀴엠’이라고 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곡의 전후 사정을 보면 분명 브람스만의 독특한 레퀴엠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음악학자 중에는 브람스가 우리를 위로하는 성서구절들로 가사를 발췌하였으므로 ‘너무나 인간적인’, ‘살아남은 자를 위한’ 레퀴엠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옳지 않다. 브람스가 부활신앙을 표현한 성서 구절을 발췌한 것을 보면 죽은 이를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받아들여진 다소 과장된 정보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음악적 판단에도 항상 정확한 악곡 분석에 근거한 해석이 필요하다.

제1곡은 분주(分奏)되는 비올라와 첼로가 이끌면서 시작되는 ‘위로’의 합창은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마태오 5, 4)로 시작하여 ‘Die mit Tränen säen, werden mit Freuden er-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Op. 45
Simon Rattle/ Berliner Philharmoniker
Dorothea Röschmann (soprano) & Thomas Quasthoff (baritone)
Rundfunkchor Berlin
 Release Date: 5th Mar 2007
 Catalogue No: 3653932
 Label: Warner Classics
 Length: 67 minutes
 Disc of the month
 Gramophone Awards (2007)
 Grammy Awards 50th Awards (2007)
 Best Choral Performance



nten(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시편 125,5-6)으로 이어진다. 때때로 합창이 무반주로도 진행되는 것은 브람스가 ‘르네상스시대 합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3부형식(A-B-A)의 제1곡에서는 F장조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는 성경말씀에만 집중하게 한다. 지나간 호의 헨델편에서 그의 메시아의 20번째 곡 ‘주는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이시리니(He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도 F장조로 영화 ‘멘체스터 바이 더 씨’에서 인간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장면에 나오는 음악으로 소개하였다. 평범한 음악애호가에게 조성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우리의 선입견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 **제2곡**은 2부형식(A-B)이다. 시작은 3/4박자의 다소 특이한 장송행진곡으로 바흐의 사라방드를 연상시키며 팀파니의 울림이 인상적이다. 이 장송곡의 주제는 원래 브람스가 스승 슈만이 정신병원에서 회복하면 보여주겠다고 시도했던 미완성의 교향곡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미완성 교향곡의 다른 한 주제는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 쓰였다. 브람스의 이례적인 3박자의 장송행진곡은 슈만의 카니발(Op.9)의 20번째 곡이 ‘다윗 동맹’이 ‘블레셋인’에 대항하여 승리하는 행진곡으로 끝난다는데 착안하였다. 스승 슈만의 승리의 행진곡이 브람스에게는 슬픔의 행진곡이 된 것이다. 이 기묘한 멜로디는 모든 세속적인 것은 허무하다는 가사의 합창 ‘Denn alles Fleisch, es ist wie Gras(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1베드로 1, 24)을 밑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이보다 더

명상적이고 슬픈 합창이 있었던가! 이 슬픈 명상은 이제 강력한 관현악의 폭팔을 촉발시킨다. 아마도 슈만 천재성의 붕괴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장송행진곡은 죽음의 Bb단조를 썼고, 장송행진곡에 이어서 나오는 에피소드 ‘So seid nun geduldig, liebe Brüder, bis auf die Zukunft des Herrn(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야고보 5, 7)로 대조적으로 Gb장조를 써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여기까지가 죽음-희망(Bb단조-Gb장조)로 구성된 제1부(A)였고, 제2부(B)도 구성은 동일하다. 제2부도 다시 처음의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Aber des Herrn Wort bleibet in Ewigkeit(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1 베드로 1, 25)라는 희망의 말씀(Bb장조)과 계속하여 같은 장조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환희의 송가’를 연상시키는 ‘Freude, ewige Freude(끝없는 즐거움)’(이사야 35, 10)을 노래한다. 스승 슈만이 브람스를 가리켜 장차 베토벤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한 것을 기억한 것일까. 제3곡은 드디어 솔로 베이스-바리톤이 나와 ‘Herr, lehre doch mich, daß ein Ende mit haben muß, und mein Leben ein Ziel hat,(주님, 제 끝을 알려 주소서. 제가 살 날이 얼마인지 알려 주소서)’라는 다소 슈만의 가곡 분위기를 내고나면, 뒤이어 합창이

‘Nun Herr, wes soll ich mich trösten?(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시편 39, 5-8). 이 때, 음악적 긴장이 고도에 도달하는데, 바흐의 페달 푸가 풍의 저음이 주마등같이 전개된다. 오르간 음악의 견고한 저음이 흐르는 가운데 합창은 ‘Der Gerechten Seelen sind in Gottes Hand und keine Qual rühret sie an.(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지혜서 3, 1)라고 응답한다. 제4곡은 지금까지 우울했던 전곡들을 떨쳐버리고 왈츠풍의 따뜻한 합창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시편 84, 2-3; 5)에 이어서 복잡한 대위법의 에피소드가 끼어든다. 밝고 감미로운 멜로디로 인기가 많아 전7곡 중 이 곡만 발채되는 경우도 흔하다. 제5곡은 소프라노 솔로가 ‘Ihr habt nun Traurigkeit; aber ich will euch wiedersehen,(너희는 지금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곧 너희를 보러 올 것이다)’(요한 16, 22)라고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건네면, 합창은 ‘Ich will euch trösten, wie einen seine Mutter tröstet(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이사야 66, 13)로 응답한다. 원래 초연에는 없던 곡으로 내심을 잘 표현 못하는 브람스가 과감하게 끼워넣은 것

Brahms: Ein Deutsches Requiem, Op. 45
 Barbara Bonney (soprano), Andreas Schmidt (baritone)
 Wiener Philharmoniker, Wiener Staatsoperchor, Carlo Maria Giulini

Release Date: 17th Apr 1996
 Catalogue No: 4235742
 Label: DG
 Series: Masters
 Length: 73 minutes
 Recorded: 1987-06-22

Recording Venue: Grosser Saal, Musikverein, Wien



이다. 브람스의 사모곡이 아닐까. 제6곡은 다른 전통적인 레퀴엠의 ‘디에스 이레’에 상응하는 곡으로 종말론적 부활을 노래한다.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솔로 베이스-바리톤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에 이어서 강력한 합창 ‘Denn es wird die Posaune schallen und die Toten werden auferstehen unverweslich;(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으로 시작하여 승리의 합창 ‘Der Tod ist verschlungen in den Sieg, Tod, wo ist dein Stachel! Hölle, wo ist dein Sieg!(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지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1코린토 15, 51-52; 54-55)으로 마무리되며 거대한 푸가로 하느님을 찬양한다. 마지막 제7곡은 평온한 합창이 제1곡의 ‘Selig sind, die da Leid tragen(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를 반복하는데, 마지막에는 ‘Selig sind die Toten, die in dem Herrn sterben, von nun an(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묵시록 14,13)로 마무리된다. 사강의 말처럼 스스로를 파괴한 천재 슈만과 장애를 딛고 무한한 사랑을 안겨준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리라는 브람스의 간절한 바램이었다. 그 바램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주고 육신은 풀과 같다는 사라방드 3박자의 팀파니가 필자의 가슴을 때리고 명상으로 이끈다. 필자의 인생도 한걸음 한걸음 장송행진곡이라는 것을!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갈릴래아 숲속에서의 쉼 - 북부 갈릴래아 지역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지난시간까지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의 절반을 다 돌아봤으니, 이제 발걸음을 내륙으로 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대가 높고 나무가 많은 지역, 북부 갈릴래아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본인들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저는 과장을 심하게 하는 그들의 특성상 그런가보다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대만여행을 하는 도중 굉장히 익숙한 외국어가 들렸는데 히브리어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로 여행을 온 이스라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관광을 오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국 치앙마이, 몽골, 남미 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히브리어가 꽤 빈번하게 귀에 들려 '우와 여기까지 돌아다니네' 하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보면 그들의 DNA에 방랑벽(?)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조상들도 반 유목민 형태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 번의 큰 침략으로 인해 그들이 살던 터전에서 대거 강제이주를 당했거나 쫓겨났거나 하는 등 타의에 의한 이동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해외여행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길거나 짧은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레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국토 면적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지역이기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낯설지 않은데,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이며 광야며 트레킹을 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쉬 하 니크라에서 내륙쪽으로 13km정도 이동하면 Keshet cave 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펠링으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해발 400미터에 위치한 이 동굴은 석회암 천장이 무너지면서 남은 일부인데,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아치 뒤로 보이는 갈릴래아의 풍광을 보면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도 아름답고 웅장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만든 자연은 그 아름답기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Keshet cave에서 또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몽포트 성(Montfort Fortress)이 있습니다.

이곳은 십자군시대 때에 지어진 성으로, 지금은 파괴된 채 남아있는 폐허이지만 부서진 건축물과 상부 갈릴래아 산지가 서로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몽포트 성은 1차 십자군 시대 때 게르만 사람들로 이루어진 튜턴 기사단(Teutonic Order)에 의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과장이 심한 이스라엘인 선생님이 가이드학교 현장





keshet cave



몽포트 성 폐허



제파트 거리



제파트 상점

학습 중에 독일 뷔센의 유명한 성을 예로 들며 비슷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을 때,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산 한가운데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곳도 트레킹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래쪽 개울가에 차를 세워두고 약 2~3시간 왕복 트레킹을 가볍게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메론산(Meron mountain)**이 있습니다. 메론산은 해발 1200미터의 높은 산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옵니다. 이곳은 유대교의 성

지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유대교의 한 종파인 카발라(Kabbalah)가 탄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카발라는 신비교의 유대교로서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에 의해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몬 바르 요하이는 랍비 아키바(최초의 탈무드 편집자)의 제자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 메론산 근처의 마을 페킨(Peki'in)의 한 동굴에 숨어 조하르(Zohar, 빛이라는 뜻)라는 유대 신비주의 주해서를 저술하고 미드라쉬(유대교 주석)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의 무덤이 이곳 메론산에 있습니다. 유대인 명절중에 '라그 바 오메르(Lag Ba Omer)'라는 날이 있는데 이날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죽은 날을 기념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가 남긴 책인 '조하르(빛)'과 관련지어 모닥불을 피우고 세속말로 '불명'을 하며 즐겨워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카발라와 전혀 상관 없는 유대교인들도 모닥불에 모여 감자와 양파를 구워먹고 즐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메론산이 바로 오리지널 장소입니다. 작년에 이 산에서의 라그 바 오메르 행사 때 압사 사고가 크게 나서 우리나라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492년에 스페인에 굶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콩키스타(Reconquista, 이베리아 반도

의 이슬람교 축출 및 가톨릭화)를 종결하게 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며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이곳 메론산에 스페인계 유대인들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의 분위기가 보통의 이스라엘 마을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푸른색 대문들과 붉은색 지붕의 건물들이 지중해변의 마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제파트(safed, סַפֵּד)**입니다. 십자군 시대 때에 본격적으로 거주가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이슬람교도들의 침입, 회복, 오스만 터키의 지배 등을 거쳐 지금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이스라엘 마을이 되었습니다. 갈릴래아 동편 숙소에서 머무를



제파트 회당



찜머 아침식사



찜머 내부모습



찜머 바깥모습

때 밤에 산책을 종종 하시는데 산 위쪽에서 반짝이는 동네 이름이 뭐냐고 자주 물어보십니다. 그 마을이 바로 이 제파트입니다. 이 마을은 해발 900미터 위에 위치한 마을인데 갈릴래아 호수가 해저 215미터 아래 있으니 꽤 높이 있는 마을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양치 치즈가 유명합니다. 두부처럼 부드럽고 약간 짭조름한 것이 아침식사 때에 빵과 샐러드와 곁들이면 아주 좋습니다. 제파트는 갈릴래아 호변에 머무를 때 반나절 정도 둘러보기 좋은 마을입니다. 특별히 예술가의 거리와 오래된 회당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숲이 있는, 이 상부 갈릴래아 지역에는 산장들이 있습니다. 찜머(zimmer)라고 불리우며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집입니다. 적설량이 높은 겨울철에 찜머에 머무르면 하얀 눈이 쌓인 숲속에 있는 따뜻한 오두막, 무더운 여름철에는 높은 산속의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오두막입니다. 약간 독일 숲의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릴래아 지역에 독일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왕왕 있기에 이렇게 찜머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군데의 찜머에 머물렀었는데요 한번은 상부 갈릴래아 숲 중턱에서, 다른 한번은 갈릴래아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골란고원 마을에서였

습니다. 골란고원은 숲이 아닌 지역이었지만 갈릴래아 호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훌륭한 장소였습니다. 이 찜머들의 공통된 특징은 풍성한 아침식사 제공입니다. 특별히 갈릴래아 키부츠에서 바로 공수한 우유와 그것으로 직접 만든 치즈, 버터, 유기농 과일로 만든 잼, 바로 채밀한 꿀, 손수 구운 빵 등 화려하고 값비싸지는 않아도 공장에서 찍어낸 음식이 아닌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그 맛은 '일품이다'로 단순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일어나, 숲의 맑은 아침공기를 마시며 나무사이로 내려오는 햇빛 아래서 마시는 민트 차 한잔과 맛있는 아침식사! 바쁜 일상에 찌들었

던 피로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성지, 그리고 기념교회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지만 이 찜머에 머무르며 마주하는 소박하고 어찌면 약간 척박하기까지한 이스라엘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쉼. 그것에서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체 여행을 하면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실 때에는 하룻밤은 이 갈릴래아 북부 산지의 찜머에 꼭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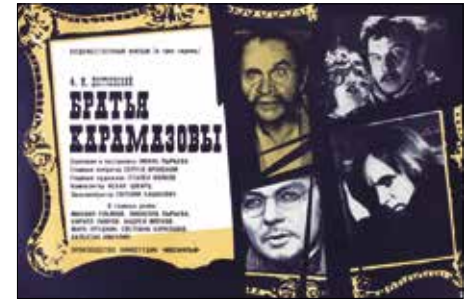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신정론 비판과 아이들의 이야기

최대환 신부_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1.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은 2부 5편 <Pro와 Contra> 에 나오는 이반과 알료사 형제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대심문관’의 이야기입니다. ‘대심문관’은 종교철학과 신학에서 세상의 악과 고통의 존재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사랑이신 하느님의 속성 사이의 모순을 뜻하는 ‘신정론 (神正論, theodicy)’에 대해 논할 때 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대목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걸작이 출간되고 나서 무엇보다 ‘대심문관’의 전설 부분은 20세기의 수많은 철학자, 신학자, 작가들을 매혹했고 도전이자 영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수난이라는 부조리입니다. 이반의 논설과 ‘대심문관’의 전설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실존적이며 의미추구의 관점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심오하고 장대하게 펼쳐보였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이러한 무신론을 형상화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 사명감과 절

실함 그리고 자부감을 가진 것을 그가 남긴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5편을 소설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신론에 대해서는 여러 재발견과 해석이 있었지만,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알베르 카뮈의 여러 작품에 드러나는 인본주의적 무신론일 것입니다. ‘대심문관’ 이야기의 문학적 구조와 그 철학적, 신학적 영향 및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자세히 소개하려합니다. 또한 이반의 무신론에 대한 도스토예프스키의 ‘간접적’ 응답이라 볼 수 있는, 이어지는 6편 <러시아의 수도사>에 나오는 조시마 장상 (장로)의 가르침과 알료사의 영적 체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려합니다. 그러나 이반의 신정론 비판과 ‘대심문관’에 나온 그리스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스토예프스키가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을 결코 관념적이나 피상적인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비



Bratya Karamazovy (1969)
3h 52m

통함과 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자비라는 신비에 대한 체험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비극을 가슴아프게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희망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2.

알료샤의 작은 형이며 날카로운 지성과 절망과 허무의 내면이 교차하는 당대의 ‘젊은 세대’ 지식인을 상징하는 이반 카라마조프는 자신의 신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이 세계를 수용하지 않아.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이 세계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게 아니야. 이걸 이해해다오. 나는 그분이 창조한 세계, 하느님이 만든 이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받아들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카라마조프 형제들』 1, 홍대화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21, 435-436쪽)

그는 이른바 ‘유클리드적 인간지성’이 헤아리기 어려운 신의 존재에 대한 공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신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 의미 없이 행하여지는 악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허락하는 신에 대해서, 세상 끝 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그리하는 세상을 ‘거절’합니다. 이반은 이런 입장을 역사에서, 또한 당시의 현실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상세하게 짚어가며 분노와 비통함을 담아 알료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독자들에게 큰 심정의 동요를 일깨우는 장면이자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으로서, 날카로운 양심을 지녔지만 희망을 잃은 근대적 지성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이반이라는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이끌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반은 그가 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고 질문하는 알료사에게 자신의 무신론은 단순히 이론적 추론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악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격정적이며 실존적인 반항이라는 것을 기나긴 열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사슴이 사자 옆에 눕는 장면을, 목이

잘린 자가 일어나 그를 죽인 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나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두가 문득 알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고 싶어. 지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소망 위에 세워졌고 나는 그것을 믿어. 하지만 아이들은, 바로 그 때에도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백번이나 반복하는데, 문제는 수없이 많지만 아이들만 예로 든 것은 거기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반박할 수 없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야. 들어봐, 만일 고난을 대가로 영원한 조화를 사기 위해 모두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필 아이들이지? 말해봐, 제발. 나는 어째서 아이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어째서 아이들의 고난으로 조화를 사야만 하는 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무엇을 위해 아이들 역시 물질로 전략해서 누군가의 미래의 조화를 위해 밑거름으로 스스로를 바쳐야 하는 거지? 죄 안에서 사람들이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해. 복수 안에서도 연대되어 있지. 하지만 아이들은 죄에 연대되어 있지 않잖아. 만일 아이들도 아버들과 함께 아버들의 모든 악행에 연대되어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물론 이 진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같은 책, 451-452쪽).

“나는 최고의 조화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 조화는 (...) 학대당한 어린아이 한명의 눈물만 한 가치도 없어! 그 눈물이 보상받지 못한 채 남겨졌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눈물은 보상받아야만 해. 그렇지 않다면 조화라는 건 불가능하지. 그렇지만 무엇으로, 너는 무엇으로 그걸 보상할 거니? 보상이 가능하기는 할까? 미래에 이루어질 복수로 보상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들은 이미 고통을 당했는데 복수가 무슨 소용이고, 박해자들을 위한 지옥이 무슨 소용이겠니? 지옥이 무얼 고칠 수 있겠어? 그리고 지옥이 있다면 조화는 무슨 조화란 말이나? 나는 용서하고, 포옹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 만일 아이들의 고통이 진리를 사기 위해 필요한 고통의 값을 보충하기 위한 거라면, 미리 단언하는데 진리 전체라도 그만한 가치는 없어.” (같은 책, 453쪽)

“나는 조화를 원치 않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치 않아. 나는 차라리 복수를

맛보지 못한 고통들과 함께 남을 거야. 설사 내가 틀렸다 해도, 나는 차라리 복수를 맛보지 못한 내 고통과 해소되지 않은 내 분노를 품은 채 남겠어. 조화에 매긴 값이 너무 비싸서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그 입장료가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 나는 그 입장권을 얼른 반납하겠어. 더구나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반납해야지. 나는 그걸 실행하는 중이야. 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야, 알료사. 나는 다만 입장권을 하느님께 가장 정중히 반납하는 것뿐이야.” (같은 책, 454쪽).

이러한 이반에게 알료사는 이는 무신론이 아니라 ‘반항’하는 정신이라고 항의하듯 반문하고, 이반은 다시 아이 같은 미약한 존재 한 명의 눈물과 희생을 전체 세계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건물을 위해 정당화 시키는 건축가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 사이의 논쟁은 신이 허락한 세계라는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며, 이반이 스스로 어설픈 서사시라고 짐짓 칭하는 ‘대심문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

아이들이라는 주제는 이 작품에서 내내 심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반의 논고 중에서 충격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들이 학대받는 사례는 상상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과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꼼꼼하게 수집한 당시 언론보도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 받는 아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대하였고, 이로부터 시대 전체의 위기를 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작품이 쓰여지기 직전 본인이 사랑하는 아이를 병으로 잃고 크게 비통해 하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이 작품의 형성과 그 주된 정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역시 혼란과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마치 ‘천사’와 같은 인격으로 주변의 절망과 악행에 처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길을 돌이킬 계기가 되어주고, 또한 걱정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소설의 세계 속에서 희망의 빛을 지켜가는 수련 수사이자 형제들 중 막내의 이름이 알료샤인데, 이는 바로 네 살의 어린 나이로 죽은 그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는데 대해 그의 아내 안나 도스토예프스카야는 자서전에서 에

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흘렀을까. 경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는 것이 보였다. 의사의 말에 안심했던 나는 경련이 지나가고 아이가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라고, 아마도 곧 회복이 될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랬으니 갑자기 아이의 숨이 멎고 죽음을 찾아왔을 때 나의 절망이 어떠했겠는가. 표드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세 번 성호를 그은 다음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나 역시 통곡했고, 사랑스러운 알료샤를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 아이들도 애처롭게 울었다.

표드로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죽음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찌된 일인지 알료샤를 특히 사랑했다. 마치 그 아이를 곧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한 병적인 사랑이었다. 남편을 특히 짓누른 것은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유전된 간질로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우리를 짓밟은 운명의 일격을 걸으려는 담담하고 용감하게 견뎌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정말 걱정되었다. 자신의 깊디깊은 슬픔을

그렇게 자제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약해져 있던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사태를 불러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엑스북스, 2018, 482-483)

아이가 죽은 해는 1878년이었고, 그 두 해 후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완성되었고, 그 이듬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세상을 떠납니다. 알료샤가 죽은 후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절친했던 젊은 철학자 솔로비요프를 동반해서 오펜타의 은수 수도원에 체류하게 된 것이 이 걸작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료샤의 흔적은 주인공 알료샤의 이름 말고도 두 번에 걸쳐 등장하고, 이 장면들은 소설의 세계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앞부분에 속하는 2편 3장에는 알료샤의 스승인 조시마 장상이 여러 신자들을 맞이하여 충고를 하고 위로로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믿음이 있는 아낙네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세 살짜리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 아들의 이름이 알렉세이로 나오는데, 이 이름은 알료샤의 다른 파생형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장면에서 아이를 잃은 여

인이 하는 이야기들은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된 이야기는 부친살해의 혐의를 받고 유죄선고를 받는 알료샤와 이반의 배다른 형 드미트리의 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료샤에게 도움을 받는 일련의 소년들의 이야기 역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절정이 되는 것은 일류샤라는 소년이 병으로 죽게 되고, 그 주변에 모여든 소년들이 알료샤에게 감화를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장면입니다. 일류샤 역시 알료샤의 다른 파생어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사상과 관념의 소설이기도 하며, 여기서 제시된 종교철학적 전망은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 결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서 형성된 작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참으로 진실 되게 인생에 뿌리내린 사랑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갈망에서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내가 병원이 싫은 이유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나는 병원이 싫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병원을 돌아다니다 마주치는 무표정(웃으면 어디가 덧나는지 항상 인상을 쓰고 있다)하면서 내 얼굴과 가운데 걸친 명찰을 번갈아가며 바쁘게 검색하는 좀비같은 그네들(누군지는 굳이 말하기 싫다)의 눈동자가 불쾌하다. 어디 트집 잡을 건수는 없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조금만 건드리면 화산처럼 폭발할 준비를 마친 게임 속 전투력 만렙의 검투사처럼 느껴져서 싫다.

나는 병원이 상쾌하지 않다. 이곳에서 노동의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지만 여름장마 같은 개운하지 않은 텅텅난 느낌은 이곳을 떠날 때까지도 계속될 것 같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을 듣는 순간 느끼는 불안정함도 같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면서 찰나에 뒤바뀌는 미스터리한 도시괴담의 온상이며,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한다. 병원만 오면

갑갑한 이유는 영화 <곤지암>이나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킹덤>처럼 온갖 사연과 원한을 가진 유령들이 떠도는 탓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병원이 무섭다. 전공의 때 심야의 응급실에서 술취한 환자 두피를 봉합하다가 주먹으로 맞고, 회진 중 사망자의 어머니가 휘두른 돌에 머리를 찧었다. 교수가 되고나서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에게 빙 둘러싸여 사망한 환자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49제 때에는 납골당에 가서 조문을 하는 증명사진을 찍어 보냈으며, 정문 앞에 보호자들이 수의를 입고 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관을 들고 병원을 다닌 퍼포먼스를 몇 개월 겪었다. 당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트라우마는 죽을 때까지 떨치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도 두렵다.

나는 종종 슬프다. 007 제임스 본드처럼 5개

의 숫자(요새는 6개)로 이루어진 살인 면허 번호(의사면허)를 가진 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도와 법에 저촉되는 재산축적 과정을 제삼자가 캐묻게 되는 현실이 슬프다. 응급실 당직의사 폭행사건으로 병원 응급실에 경찰관을 상주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C일보 온라인 판의 댓글(비의료인이 적은 글이겠지)과 30%가 채 되지 못한 찬성률(아마도 의사가 대부분일 것이다)은 슬픔을 넘어 절망에 이르게 한다.

영화에서 설정한 캐릭터는 대개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톨레랑스의 범주 안에서 그려지지만, 한국영화에 나오는 의사들은 주인공이 아닌 한 비정상적이다. <신세계, 2012>에서 석동필 회장은 반대파로부터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심야에 응급수술을 받는다. 수술실에서 나온 집도의가 사망 소식을 전하자 어김없이 목살을 잡힌다. “병원에서 돈을 받아 X먹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지. 담당자 나오라고 해.” 억울하지만 어딘가 낮이 익다. 죽으면 다 의사 잘못이다.

부도 직전의 병원 경영진은 급기야 병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닥치는 대로 환자를 받지만 의사들이 떠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신세계
New World, 2012
범죄, 드라마 | 한국 | 134분



감염
Kansen, 2004
공포 | 일본 | 98분

된 치료가 될 리 없다.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만 의료진은 이를 감추는데 급급하다.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의 응급처치 중에 영화칼숨을 영화칼로 잘못 주사하여 환자가 사망하지만 부검해도 원인을 모를 것이라 판단한 의사는 사체를 좀 더 빨리 부패시키기 위해 병실에 난로를 피운다. 그 와중에 응급실 앞 구급대의 침대 위 환자는 이미 죽었으며 소위 괴질에 걸려 온몸의 내장이 녹아가고 있다. 일본 영화 <감염. 2004>은 실제로 감염의 발생으로 의료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보다 마음속에 품던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 공포들이 뭉쳐서 만들어 낸 환상으로 보인다. 환자의 생명은 최우선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처치에 대한 과오는 어떤 식으로든 단죄되어야 한다고 조용히 협박하는 듯하다.

흉부외과 전문의 스티븐은 음주 후 시행한 수술로 환자를 죽이게 된다. 사고 이전 완벽했던 그의 가족은 어느 날 집으로 찾아 온 16세 소년에 의해 조금씩 균열이 발생한다. 소년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아들로써 죄책감에 친절히 대하는 스티븐에게 점점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린다. “내 가족을 죽였으니 선생님 가족도 죽어야 균형이 맞겠죠? 첫 단계는 사지가 마비되고, 두 번째는 거식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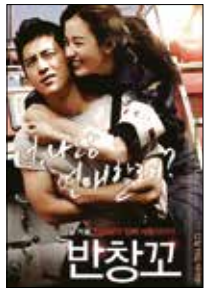
걸리고, 세 번째는 눈에서 피가 나고, 결국엔 죽게 될 겁니다. 누굴 죽일지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니면 다 죽을 테니까요.” 피해자의 남겨진 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료사고 배상이 아닌 함무라비식의 제로섬 균형을 요구한다.

<킬링디어, 2017>는 속죄(성스러운 사슴 죽이기)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상징을 주제로 한 부조리극이다. 처녀신 아르테미스의 수사슴을 해친 아가멤논 왕에게 딸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면 트로이 원정을 허락겠다는 신탁은 딸 대신 바쳐진 암사슴으로 대체되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다. 스티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소년의 신탁에 의해 그의 아들과 딸에게는 실제로 원인모를 형벌이 가해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조감샷에 의한 신의 시선에서 견지되는 징벌은 불쾌함의 정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영화 속에서 의사 스티븐은 두 가지 함의로 읽힌다. 손으로 직접 생사를 가늠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신탁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 한편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는 사건 앞에서 무기력하여 형벌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스스로 가족의 처단자인 네메시스로 체화한다.

응급실에서 남편의 팔뚝에 새긴 문신을 보고 온 몸이 멍투성이인 심장판막치환술 여인이 구타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지주막하출혈 환자를 놓친 의사는 결국 면허정지를 당한다. 환자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과 사를 오가고 병원에서는 장기이식을 권유하면서, 의외로 속깊었던 보호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영화 <반창꼬, 2012>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다짐하지만 만의 하나 생각지 못했던 사소한 틈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와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한 신경외과의사의 회한에 찬 기시적인 고백에 진배없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올 때마다 갑갑한 모양이다. ❷



킬링디어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2017
스릴러 | 영국, 아일랜드, 미국 | 112분



반창꼬
Love 911, 2012
드라마, 멜로/로맨스 | 한국 | 1120분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사도 성 토마스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성 토마스(Thomas, 1세기경) 사도는 갈릴래아 출신으로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다. 다만 요한의 복음서에 토마스 사도의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한다. 토마스 사도는 예수께서 라자로를 죽음에서 되살리기 위해 베타니아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나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요한 11, 16) 최후의 만찬 때에도 다른 사도들은 비통에 잠겨 침묵하고 있었으나, 토마스만이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솔직히 말했다.(요한 14, 5)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말했다.(요한 20, 25)

4세기부터 전해지는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마스 사도는 왕궁을 지어달라며 인도에서 그를 초청하여, 목수로 일하며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왕과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후, 칼과 창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토마스 사도의 도상(圖像)은 건축용 직각자를 들고 있거나, 긴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그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는 장면이다. 또한 토마스의 의심은 ‘성모승천’과 ‘성모대관’까지 이어진다.

만져보아야 믿는 믿음

예수께서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참으로 살아 숨을 쉬고 계셨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 토마스가 있었다. 토마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 전에 실제적인 증거를 요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장 킬리에, <토마스 성인>, 성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의 합창단석 나무 부조, 1520년, 프랑스 오르베-라비

깨어난단 말인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토마스 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다.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아야 믿을 것이라고 했다. 성경은 토마스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정말 손을 넣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화가는 ‘토마스의 의심’ 도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현하곤 한다. 첫째, 예수님이 다른 한 손으로 직접 옷깃을 걷어 내는 장면. 둘째, 예수님이 자신의 옆구리 상

쳐를 손으로 가리켜 보이는 장면. 셋째, 예수님이 토마스의 손을 자신의 옆구리 상처 속으로 집어넣도록 잡아당기는 듯한 장면이다.

중세 이탈리아 화단의 거장 두치오(Duccio di Buoninsegna, 1255-1319)는 극히 소수의 그림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잘 알려진 <마에스타 Maestà>제단화가 있다. 이것은 시에나 대성당의 중앙 제단에 걸기 위해 제작되었고, 그 뒷면에는 38개의 성경 속 장면이 묘사돼 있다. 그중 한 패널인 <토마스의 의심> 장면이다.

예수님은 자애로운 표정으로 오른팔을 높이 든 채, 왼손으로 옷깃을 잡아 올리면서까지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왼쪽 손등과 발등에는 십자가의 흔적인 못 자국이 선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죽음의 승리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하고 계신다. 반면, 토마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대고 있다.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듯하다.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지만, 무엇인가 주저하는 동작은 그의 약하고 우유부단한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실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에 예수

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하시며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믿음으로 불신과 의혹에 사로잡힌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화가 두치오는 부활한 예수님의 의상을 흰색(수의)으로 나타내지 않고 붉은색 튜닉에 짙은 푸른색 망토로 그리고 있다. 붉은색 튜닉은 예수님의 수난과 희생을 의미하고, 푸른색 망토는 하늘의 빛으로 신성함을 뜻한다. 화가는 토마스가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한 분이심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배경에 그려진 지붕은 이 공간이 실내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그날 밤에 방에 모여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토마스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야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다. 닫힌 문은 불신과 믿음의 부족, 더 나아가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옆구



두치오 디 부오닌세나,
<토마스의 의심>, 1308-11년,
목판에 템페라,
시에나 대성당 박물관

리와 손의 상처로 토마스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의 닫힌 문을 열어 그들이 절망과 불신의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다.

보고야 믿는 믿음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거둔다. 그런데, 그는 성모 마리아가 임종 후, 무덤으로 옮겨져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간 사실도 보지 못하였기에 믿으려 하지 않았다.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인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가 페루지아에 머물던 시기에 성 프란치스코 알 몬테 성당을 위해서 성모가 임종 후 무덤으로 옮겨지고 그 후 하늘에 올라 천상 모후의 관을 예수께 받는 장면을 그렸다. 작품 구성은 상하로 이등분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관계다. 성모님은 자기 아들에게 왕관을 받고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된다. 중세 전통에 따르면, 모자간인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에 의해 하느님과 같다는 바탕을 두고 영적으로 결합한 부부간으로 생각됐다.

장례식을 마친 뒤 성모님의 시신은 예루살렘 무덤으로 옮겨진다. 성모 마리아는 육신의 순결함으로 육체가 무덤 안에서 부패하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됐고, 그녀의 영혼은 육체와 결합했으며, 무덤에서 다시 나와 무수한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천상의 신부방'으로 들어갔다.

사도들은 성모님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으나, 하늘에 올라 천상의 관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는 그들의 모습에는 경외감이 감돈다. 지상에 남아 있는 사도들은 이 놀라운 사건에 우왕좌왕하는 기색이 없다. 라파엘로의 색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색조로 가장 아름다운 천상 모습을 지켜보는 사도들의 매우 온화하고 정적인 모습이 표현돼 있다. 사도들은 지상 생활을 마친 뒤 성모님과 같이 영원한 천상 공간으로 들어가길 염원하는 듯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도들 중앙에 위치한 토마스는 손에 허리띠를 들고 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황금전설』을 보면, 토마스는 사도들 가운데 성모 임종 당시 맨 마지막에 도착했다. 성모님은 하늘로 올려진 상태였고, 이를 보지 못한 토마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때 성모님 옷에 둘러뒀던 깨끗한 허리띠가 그대로 토마스의 손에 떨어진다. 그는 비로소 성모님의 몸과 영혼이 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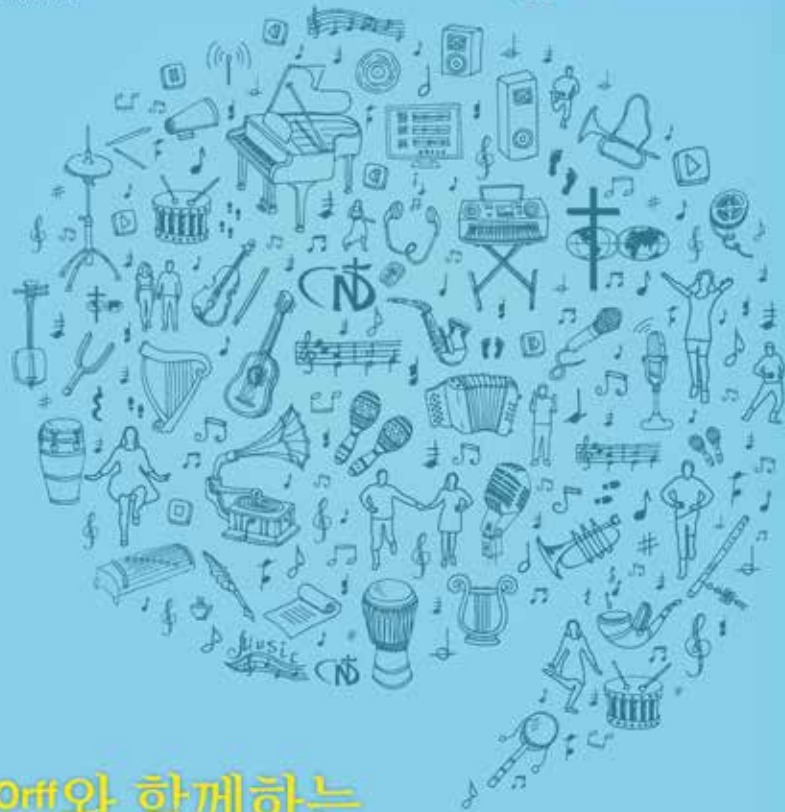


라파엘로, <성모대관>, 1502-03년, 캔버스에 유채, 로마 바티칸 박물관 회화관



베노초 고출리, <성모 마리아의 허리띠>(일부), 1450-52년, 목판에 템페라, 로마 바티칸 박물관

하늘로 올려졌음을 깨닫는다. 성모님은 의심하는 사도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증명하기 위해 허리띠를 내려주고 있다. 이렇듯 토마스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표징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한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 29) ㉠



오르프와 함께하는 심, 움직임

주제 리듬, 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오르프슈울레크(Orff-Schulwerk) 기본과정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일시 3월 15일~6월 14일(매주 화요일) 19:30~21:00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강사 권현경 마리 요한나타 수녀(노들담 수녀회)
회비 모임당 4만원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4-3048
(카톡ID: k_orff)

프로그램 일정

일 자	수업 내용(총 4회)
1차 모임(3/15~4/5)	첫째주(1회) 나의 이름과 함께 움직임, 리듬, 피동, 문학
2차 모임(4/19~5/10)	둘째주(2회) 리듬으로 대화하기(가을, 점심, 문학)
3차 모임(5/24~6/14)	셋째주(3회) 소리를 느껴다(노래, 장난감, 문학)
	넷째주(4회) 나를 표현하기(노래, 움직임, 장난감, 문학)

• 본 강좌는 오르프슈울레크(Orff-Schulwerk)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19~21세기 유럽의 교육법으로 기호화된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말소리, 노래, 신체 연기, 움직임과 함께 몸의 움직임을 통해 사물을 다감각적으로 표현하는 4차원 학습(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통한 학습(오르프 슈울레크)입니다.



원산지

(Pisum sativum)

콩과에 딸린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덩굴식물이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고대부터 재배되었으며 맨틀이 시골에 이르기까지 유전발적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종류와 모양

일년생 또는 둘해살이 풀이며 높이가 105cm 정도로 길다. 줄이 2m 정도이고 잎은 깃털이며 잎 끝 엽흔으로 되어 지주를 잡아 올라가면서 기른다. 날개(피리)에서 꽃이 피고 나뭇가지의 정맥이 1cm 정도가 된다. 7~8월 정도 열매가 익는다. 어린 콩줄기를 잘 자른 콩이 되는 자루줄은 길이 80~100cm 정도로 콩대에 끼어 콩알까지 1cm 정도 떨어져서 자랄 때도 콩알까지 1cm 떨어져 있다. 잎의 끝에서 씨가 수확할 수 있다.

2022 명동보름장 개최

4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일 첫째 ~ 셋째 주일
망동대성당 등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2022 명동보름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ethsemane [geth-sem-uh-nee]

noun a garden east of Jerusalem, near the brook of Kedron: scene of Jesus' agony and betrayal.
Matthew 26,36; Mark 14,32

ORIGIN OF GETHSEMANE

From Late Latin Gethsēmani, from Greek Gethsēmaní, probably from assumed Aramaic gath shēmānê, from Hebrew gath shēmānim "oil press"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